

유효공선행록 연구

林 治 均*

1. 서 론

고전문학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소설문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 우리의 고전소설에는 영웅소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우리 소설사에는 대개가 연작형식을 띠고 있는 일련의 장편 대하소설¹⁾의 출현을 맞게 된다. 작품 수로 보아도 결코 적지 않은 이 소설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몇몇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진한 형편이다. 그 이유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없다는 점과 이들 작품 군에 대한 명칭문제, 국적문제²⁾ 등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상택 교수에 의해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시도된 이후³⁾,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법론의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들이 이들 장편 대하소설에 대한 연구를 망설이게 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이

* 시간강사

- 1) 필자가 아직 본 소설 유형의 명칭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해 보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장편대하소설이라는 명칭으로 우선 사용하겠다.
- 2)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세, “낙선제본 소설의 국적문제”(『한국문학사의 쟁점』, 서울, 집문당, 1986)에 잘 정리되어 있다.
- 3) 이상택, “명주보월빙연구”(『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서울, 중앙출판, 1981)

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작품들에 대한 체계있는 작품론만이라도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요사이 이들 작품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미지않아 훌륭한 연구성과가 나오리라 믿는다. 근래 필자도 이들 작품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고가 그 관심의 첫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인 유효공선행록을 택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한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필자가 우선은 작품론에 초점을 둔 까닭에 본고에서의 우선점 역시 유효공선행록의 작품분석에 있지만, 그러나 필자가 유효공선행록에 대해 살펴보던 중 거기에서 파생된 몇가지 문제는 단지 유효공선행록이라는 한 작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좀더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본고에 제시하겠고,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필자에 의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앞으로 계속될 필자의 연구에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과문 탓인지 몰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본 작품에 대해 작품개관의 수준의 언급은 찾아볼 수 있었다.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언급으로는 김기동교수의 것을 들 수 있다. 김교수는 〈한국고전소설연구〉에서 유효공선행록의 서지적 고찰로부터 경계, 주제, 개평까지 언급함으로써⁴⁾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개관수준에 머물고 만 한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직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차단락을 제시하여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에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한 후, 앞에서 말한 몇가지 사실들에 대해 유효공선행록분석에서 남은 문제라는 항목으로 묶어 제시하여, 계속될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유효공선행록은 국립도서관본, 서울대본, 가람문고본, 하바드대본, 기타 개인소장본 등, 낙질을 포함하여 모두 10여종의 이본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12권 6책의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서울대본을 대상으로 하였음

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서울, 교학연구사, 1983) pp. 648-653.

을 밝혀 둔다.

2. 유효공 선행록 순차단락

1. 대명 홍야 연간, 유정경에게 유연, 유흥 두 아들이 있었음.
2. 부인 가씨가 죽지만 재혼 않고 주씨에게 가사를 맡김.
3. 유정경은 장자인 연보다도 차자인 흥을 더 사랑하고, 흥은 연을 싫어함.
4. 그 때 뇨정이 강형수의 처를 겁탈하려하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
5. 강형수가 고발하고, 그 사건을 유정경이 맡게됨.
6. 뇨정이 흥이 정경에게 사랑받음을 알고 뇌물을 주자 흥이 뇨정을 옹호함.
7. 흥의 계교로 유정경이 강형수에게 도리어 칼 씌어 가두자 연이 반대하고 정경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김.
8. 흥이 연이 강형수에게 황금 수백냥을 받았다고 모함하자 불문곡직 연을 벌함.
9. 추밀부사 정관이 13도 어사와 함께 뇨정의 죄와 정경의 죄를 논하려고 함.
10. 유연이 부명으로 찾아 가자, 정추밀이 유연을 보고는 죄 줄 뜻이 없어짐,
11. 정추밀이 구혼하고, 성어사로 하여금 흥에게 구혼하게 하여 같은 날 혼인함.
12. 연이 흥에게 그간의 일을 타이르자 흥은 유연이 자신을 모함, 책하였다고 죽으려 하고 정경은 연을 심하게 때림.
13. 다음 날 연이 맞은 상처 때문에 신성하지 못하자 흥이 다시 모함, 정경은 연을 서열삼겠다고 함.
14. 과거에 연은 칭병하며 불응하고 흥만 응시하여 한림서길사에 제수되자 유공이 더욱 사랑.
15. 유정경이 장자를 폐하고 흥으로 승중하려 하고 흥은 아들을 낳음.
16. 흥의 모해로 연이 폐장되고 연은 아버가 육먹지 않도록 미친 척을 함.

17. 정부인의 흉나심과 자계상을 벗기고 연을 아래에 세움.
18. 흥이 노정과 짜고 과거에 불응하는 연을 과거보게 하기 위해 유정경을 부추김. 연이 계속 거부하자 정경이 연을 죽이려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큰 매로 짐.
19. 과거에 급제하자 원래 계교대로 폐장자된 사람이라 불가하다 간하고 유정경도 불가하다고 간하나, 태자의 간청으로 시강학사 중서사인을 겸함.
20. 태자가 같은 시제로 연과 흥을 시험. 흥도 뛰어나나 연이 조금 더 나옴.
21. 연이 계속 부모에게 잘하여 책잡을 것이 없자 흥이 불열.
22. 흥이 정부인을 모함하고, 정경이 정부인을 음란한 여자라 하여 유연보고 매를 쳐서 내치라고 함에 어쩔 수 없이 따름.
23. 정추밀이 유정경을 상소하려 하다가 정부인의 만류로 그만 됨.
24. 정부인이 자신을 개가시키려 함을 알고 피신함.
25. 양주자사로 가는 박상규가 유부에 왔다가 사실을 알고 불쾌해 함.
26. 조정에서는 후궁 만귀비가 총애를 받는데 흥의 계교로 천자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왕후를 폐하고 태자를 소대하게 함.
27. 흥이 한 계교로 유정경으로 하여금 연이 상소를 올리도록 시키게 하고, 연은 상의 진노를 살줄 알면서도 아버의 명인지라 상소함.
28. 연은 상소의 결과로 장형과 유배의 벌을 받고 흥은 슬픈 체함.
29. 유흥이 공최에게 가보인 금낭과 옥잠을 주고는 연을 죽이라고 시키는데 우연히 강형수가 듣고 유연에게 알려줌.
30. 강형수가 같이 가려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유연 혼자 떠남.
31. 객점에서 공최가 연을 죽이려 하나, 객점 노파와 부자지연을 맺고 있던(남장) 정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시비 난향과 더불어 구해줌.
32. 양주자사 박상규가 구해주고는 시킨 사람을 찾으려 하나 연이 자기 탓이라 함.
33. 치료 받고 혼자 배소로 떠나며, 금낭과 옥잠을 보고 흥이 시켰음을 아나 불문에 붙이고 금, 은을 주고 바꿈.
34. 정공이 유배 가기 전에 딸을 찾고자 하여 혈서로 박상규에게 부탁했는데 정부인은 박상규의 도움으로 정공 유배지인 축방으로 행함.

35. 태풍을 만나 고생하다가 간신히 초당에 닿자 뱃사람이 속여 내리게 하고 도망.
36. 어쩔 수 없이 연에게 가나 만나지는 않음.
37. 유연은 유배지에서 충효를 으뜸으로 가르치는데 그 중 한 학동이 장사갔었던 창두가 그러더라며 정추밀이 유배 도중 도적을 만나 죽었다 함.
38. 정부인은 방세가 없어 태형산에 올라가 동굴생활을 하나 후에 강형수의 권유로 하산하여 연과 같이 지냄.
39. 서로 부명을 내세워 각방을 쓰다가 마침내 한 방을 씬.
40. 홍은 병부상서 태학사에 제수되고, 박상규가 연을 도왔다 하여 논죄 파직시킴.
41. 홍은 정추밀 집에서 우연히 정추밀의 상소를 보고 유정경에게 알리자 유정경이 노함.
42. 또 홍은 연이 정부인과 함께 있음을 알고 정경에게 고함.
43. 정경이 칼을 보내 결단을 내리라 하자, 유연이 정추밀 상소 사건도 있고 해서 임신 중인 정부인을 내보냄.
44. 유연이 모든 사실을 고하나 정경은 홍의 제교로 상소를 올리려 하다가 유선의 만류로 그침.
45. 유선이 정경이 사사로이 연을 해할까 저어하여 사사로이 유배 죄인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하자고 하여 윤희를 받고 13성에 반포함.
46. 정경이 어렵듯이 홍이 동생 해할 뜻이 있음을 헤아리다가 홍의 방에서 태자와 연을 모해하는 서간을 보고는 깨달음.
47. 홍을 60장을 쳐서 내치고 연에게 사정 담긴 편지를 보내나 홍이 중간에서 가로채 내용을 바꿈.
48. 남만이 침입하자 홍이 출장함.
49. 만귀비의 모해로 태자는 초국을 순수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연을 만나 기거함.
50. 천자 승하하고 태자 즉위하여 연호를 홍치라고 함.
51. 모든 것이 밝혀져 만귀비 일당과 홍은 벌을 받고 연은 돌아옴.
52. 정경은 홍이 서간 고친 사실을 알고 정부인과 그 자손을 내침.
53. 유연의 상소로 홍이 감형되어 복해에 유배되나 홍은 연이 유명해지

자 싫어함.

54. 흥의 유배시에 오직 성부인과 이자 일녀만이 나가는데 아들들은 남겨 두고 부인과 딸과 데려감(다른 가족은 정경이 불허하여 못나감).
55. 정추밀이 살아 오지만 유연은 상소로 인해 정추밀을 싫어함.
56. 유가에서 보낸 창두를 따라 온 정부인은 정추밀에게 그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고하고 정추밀은 이를 인정.
57. 유연은 완강한 태도로 흥의 장자인 백경으로 양자를 삼고 가내에서는 폐장했던 것을 복원하고 정추밀과도 화해함.
58. 백명, 백경, 우성이 결혼하고 우성은 과거에 급제함.
59. 우성은 아버가 처에게 근접하지 말라고 하는 명에 대하여 반발하며, 부인 이소저를 강제로 범하러 하고 창기를 가까이 하는 등, 계속 갈등을 일으킴.
60. 우성 득병시 이소저가 친히 간병, 마침내 현실임을 깨달음.
61. 유연이 계속 용서하지 않자 우성, 길을 떠나려 함.
62. 유연이 70장을 치고 친히 간병, 갈등이 해소됨.
63. 우성은 다른 사람이 되고 벼슬도 한림학사에 오름.
64. 유흥이 돌아오고 유정경의 회갑에 흥이 늙어짐으로써 갈등 해결.
65. 가내 화목, 백경이 이자 있으나 우성의 장자 세기로 종손을 삼음.
66. 유연은 41세, 정부인은 40세로 세상을 떠나고 유연의 시호는 유효공.
67. 흥도 죽음, 백명의 자녀는 일찍 죽고 백경의 이자는 재주 없어 공이 없음.
68. 우성도 가정 20년에 30세로 죽음.
69. 강형수의 아들 강선백이 아버지 일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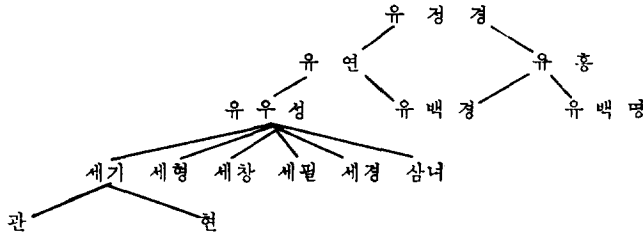
3. 유효공선행록 분석

1) 연작관계

유효공선행록의 분석에 앞서 먼저 밝혀둘 것은, 유효공선행록 역시 일련의 장편 대하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연작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연작관계에 있는 소설은 다름 아닌 유씨삼대록이라는 점이다. 김기동교수는

〈한국고전소설연구〉에서 유효공선행록은 윤리소설의 유형에 넣어 설명하였고, 유씨삼대록은 가문 소설 유형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는데 이 두 작품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른 듯 했다. 그 증거로 김교수가 유효공선행록은 柳孝公善行錄⁵⁾으로, 유씨삼대록은 劉氏三代錄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⁶⁾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은 아버지 유정경과 아들 유연, 유홍 사이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며, 유씨삼대록은 유효공선행록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유연의 아들인 유우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물론 기타 연작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작품도 의견상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도 문제가 없다. 즉 사건 사이의 연계성이 결여된 채, 단지 자손의 연속성만으로 연작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작품이 실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 묶어졌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겠고 다만 본 항에서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그치도록 하겠다.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世係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작품은 유연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작품이다. 이미 순차단락의 검토에서 알 수 있었지만 백경, 백명의 자손들은 일찍 죽거나 재주가 없어 꿈이 없다고 함으로써 관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유효공선행록 연작이 유연이라는 인물에서 비롯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유연과 같은 훌륭한 인물의 직계야 말로 아버지의 영향 아래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의식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5) Ibid., p. 648.

6) Ibid., p. 814.

이 외에도 유효공선행록은 결말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유효공선행록 분석에서 남은 문제를 다룰 때 자세히 언급하겠기에 본항에서는 사실의 제시에 그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품분석에 들어가겠다.

2) 부자·형제의 갈등 양상

유효공선행록에서는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문 내의 갈등을 겪을 뿐이다.

가문내의 갈등은 크게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갈등은 父子, 또는 兄弟 간의 갈등을 이르는 것이요, 수평적 갈등이란 夫婦(妻妾)간의 갈등을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가문 내의 갈등이기는 하지만 위의 것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姑婦 간의 갈등과 의붓어미와의 갈등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위에 있는 사람의 횡포로 인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갈등과 고난이 두 사람의 관계에 국한되며 그 갈등으로 인한 더 큰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 수평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지나,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이 갈등은 가문, 또는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말한 姑婦 간의 갈등과,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전혀 가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남자 중심의 세계였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父子, 兄弟의 질서가 무너진 가문은 절대 존재할 수 없고,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夫婦의 질서가 무너진 가정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느 한 가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문이 완성되지 않은 집안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효공선행록은 이 중에서 부자, 형제의 수직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유정경과 유연, 유흥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유연과 유흥의 갈등은 유정경과 유연의 갈등 속에 숨어져 있다. 바로 이러한 갈등의 의미를 찾아야만 유효공선행록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

며, 유씨삼대록과 연작을 이루게 된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갈등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우선 유효공선행록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하겠다. 유효공선행록에서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인물들의 성격이다. 갈등을 유발하는 유연과 유흥, 그리고 유정경의 성격은 작품 속에서 뚜렷히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유연의 성격을 살펴보자.

유연의 행동은 완벽한 중세 이념의 대행으로 드러난다. 흥이 아무리 자신을 해하기 위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는 다만 깨우치고 타이틀 뿐이며, (순차단락 12) 아버지의 명이 설사 잘못되었고, 자신을 위태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행에 옮긴다. (순차단락 22, 27) 그리고 정경이 폐장자하려 할 때는 친지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함으로써 아버지의 행위를 정당화 시켰으며, (순차단락 16) 또한 유배에서 흥이 자신을 해하려 했음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순차단락 33) 그리고 정부인과 유배 도중 만났을 때도 “찰하리 불의될지언정 불효되지 않으려고 하는 고로”라고 하면서 헤어질 뿐만 아니라(순차단락 43) 유배지에서는 충효를 으뜸으로 하여 학동들을 가르친다. (순차단락 37) 이러한 유연의 성격은 정부인의 입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유연의 아들인 우성이 유연과 갈등을 빚을 때 정부인이 우성에게 “네 임친을 효측한 즉 비록 처자의게 매물하나 대효는 일치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은 중세적 이념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벽한 성격의 소유자인 유연은 불완전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유흥, 유정경에 의해 갈등을 겪는다. 유흥은 자신의 친형인 유연에 대해 온갖 음해를 자행한다. 그래서 마침내 유연을 폐장시키고 자신이 장자가 되기까지 하지만 유연에 대한 음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그의 열등감 때문이다.

“샤군의 대효와 인조후중학문 내 본더 아는 비오 형메화목하며 봉친계가학문
인가의 경시라 비록 무식홀 촌뵈라도 알여문 후물며 나 뉴홍이 엇더 못후리오
...(中略)...내 후문이 비록 강하르트나 처연홀 도학이 형만 못후고 그 말단은

선비되어 열친 사춘지도를 밟드니 날갯뿔나는 무용한 스님이라...⁷⁾ (방점 필자 以下同)

이상은 흥이 정부인과의 대화에서 한말이다. 이러한 열등감은 후에 연의 도움으로 감형이 되어 북해로 유배를 가면서 자신의 형이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대목에서(순차단락 53)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열등감은 형인 유연의 성격이 완벽할수록 심해지고 그것이 흥에 의한 일방적 형제간의 갈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보면 형제간의 갈등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부자간의 갈등 이면에 숨어 자리하고 있다. 즉 형제간의 갈등이 부자간의 갈등으로 확대, 발전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가문의 절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父의 존재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父로 존재하는 유정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자인 유연보다 차자인 흥을 더 사랑함으로써(순차단락 3) 형제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 갈등이 부자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작품 속에서 그는 전혀 깊은 사려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으로 드러난다. 작품 속에 있는 몇가지 사건으로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자인 유연보다 차자인 흥을 더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해 흥의 계교에 맹목적으로 속아, 유연을 벌하고, (순차단락 8) 정부인을 유연으로 하여금 때려 내치게 하고, (순차단락 22) 유연이 상계 득죄할 줄 알면서도 상소 올리게 하며, (순차단락 27) 또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흥의 부인과 자녀를 내치고, (순차단락 52) 유연의 아들인 우성에게는 맹목적인 사랑을 보이는 등(순차단락 59)의 사건이 그것이며, 이에 따라 작가도 곳곳에서 유정경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유정경이 유우성의 문제로 다시 유연을 마구치는 대목에서 작가는 정부인의 생각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상서위 명신이 두려오미 있고 더 후식할 업구의 노귀치 헤아람이 업슬슬 알코 일시 중척단을 보니 그 환을 조귀 아닌 죽 프지 못홀지라⁸⁾

7) 유효공 선행록 권1.

8) 유효공 선행록 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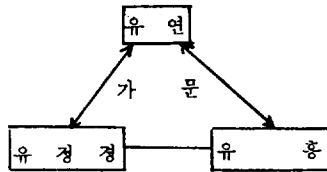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유효공선행록의 갈등은 다음과 같다.

유연의 완벽한 성격에 대한 열등감이 형제의 갈등을 야기시켰으나 이 형제의 갈등은 유정경이라는 父의 성격에서의 불완전으로 인해 부자 갈등이라는 더 큰 것으로 확대된다. 그 결과 작품에서는 형제간의 갈등이 부자간의 갈등 이면에 숨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갈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역시 독립적인 갈등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어느 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른 갈등도 따라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갈등의 해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 갈등의 해결과 그 의미

앞에서 살핀 갈등 양상을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문을 둘러 싸고 있는 이러한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의 갈등의 해결은 부자간의 갈등이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부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형제간의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앞에서 살핀 갈등의 양상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순서이다.

유정경과 유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한 것은 유효홍이었지 결코 두 사람간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부자간의 갈등은 대표를 잃지 않는 유연의 완벽함을 바탕으로 유정경이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순차단락 46, 47)

그러나 유효홍과의 갈등은 부자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의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유연은 유효홍의 아들들에게 깊은 정성을 보인다. 부자간 갈등의 해소로 자신이 다시 장자가 되나 이는 결과적으로 홍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것인 까닭에 유정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의 장자인 백경을 양자 삼아 대를 잇게 하는가 하

면, (순차단락 57) 흥의 차자 백명을 자신의 아들들 보다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것(순차단락 58)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이 흥으로 하여금 유정경의 회갑 때 누우치게 하고 그로써 갈등이 해결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형제간의 갈등은 아직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그것이 곧 장자의 문제이다. 유효공선행록은 유연의 폐장자, 장자로 복원, 흥의 아들 백경을 양자삼은 후 그를 장자로 삼는 등(여기에서 유정경과 유연사이에 심한 갈등이 보임)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유연과 유흥의 갈등은 앞서 해소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가문의 화해는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결미에 가서 백경이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성의 장자인 세기로 종손을 삼아 바로 잡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마침내 유효공선행록에 있어서의 형제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부자간의 갈등은 어떠한가?

유정경과 유연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아직 유연이 확고한 父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아들 우성이 있지만 유정경의 우성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매우 불안하였다. 이때 유연과 우성의 부자 갈등이 야기된다. 우성은 아비의 명에 정면 거역함으로써 갈등을 야기시킨다. (순차단락 59) 몇번의 우여곡절 끝에 유연의 벌함과 사랑, 그리고 우성의 깨달음으로 갈등은 해소된다. (순차단락 60, 61, 62) 이 과정을 통해 유연은 확고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효공선행록에서의 부자 갈등 역시 완전히 해결되게 된다.

이상의 논고를 통해 볼 때 유효공선행록은 유씨가문에 있어 부자간, 형제간 갈등의 완전 해소에, 그것도 大孝를 잃지 않은 이상적인 인물의 수선에 의한 갈등해결에 그 중심이 놓인다고 하겠다. 그러면 작가는 왜 본 작품에서 부자, 형제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켰으며, 유연으로 하여금 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하였는가?

앞의 갈등 양상에서도 살폈듯이 부자간, 형제간 갈등은 가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완벽한 해소야말로 가문의 완성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유효공선행록에서 형제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만한 장자 문제까지 해결하고 또 유연으로 하여금 불완전

한 아버지가 아닌 성격이나 위치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완벽한 아버지로 존재하게 한 것은 더 이상 유씨 가문에는 부자, 형제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포출이며, 유씨 가문이 대내외적으로 명문가문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유효공선행록이 가문 완성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문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부자, 형제간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문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가문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씨삼대록이 유효공선행록과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유효공선행록에서 가문 완성의 기초를 확립한 후 유씨삼대록에서는 그 기초에 바탕을 두고 가문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는 달리 연작 소설이 단지 자손으로서만이 아니라 작품 간에 어떤 긴밀한 관계로써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한다. 아직 필자가 유씨삼대록을 완독하지 못한 상태인지라 이 생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학에 의해 대략 그 경계가 밝혀졌기에⁹⁾ 그것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문 내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수직적 갈등과 그것의 해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가문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타 갈등과 그것의 해결이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다룬 소설작품이 필요하게 되었고 바로 이점이 유효공선행록의 연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는 고부의 갈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효공선행록의 경우에는 유정경의 부인이 일찍 세상을 뜨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애초부터 없었으며, 유씨삼대록의 경우, 유연의 부인 정부인이 워낙 현숙하고, 또 유우성의 부인인 이씨 또한 워낙 현질이기 때문에 고부의 갈등이 야기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갈등은 윗사람의 자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9) 이수봉, “가문소설연구”(『동아논총』 15, 동아대학교, 1978) pp.396-414.
김기동, op. cit., pp.814-820.

있기 때문이다. 의붓어미와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유씨 가문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은 부부, 또는 처첩간의 수평적 갈등이다. 대개 수평적 갈등은 그 갈등의 범위가 그들 사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는 특징을 갖는다.¹⁰⁾ 따라서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가문의 완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갈등과 그 해결을 보여주는 것이 유씨삼대록이 아닌가 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도 이 갈등의 일면이 나타나기는 한다. 유연과 정부인, 그리고 유우성과 부인 이씨와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나, 이 때에는 그 갈등이 奉父命 또는 부자화해를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이 있었다. 그러나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중심이 되어 작품이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유씨삼대록의 전반부만 보더라도 우성의 아들들의 결혼담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신학들의 검토에서도 유씨삼대록은 자녀들의 결혼담이 중심임을 밝히고 있는 점¹¹⁾을 고려한다면, 유씨삼대록에서 부부, 또는 처첩의 수평적 갈등이 중심이 되었으리라는 위의 추론이 억측은 아닐 것이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우성의 손자들이 황제의 숙부인 제왕의 모역에서 황제를 포위한 난군을 격파하고 황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바로 유정경, 유연, 유우성 대의 수직적 갈등이 해결되고, 유연의 손자 대에서 수평적 갈등이 해결되어 대내적으로 가문을 완성시킨 유가의 역량이 마침내 대외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그린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씨 가문은 대내, 대외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본항의 논의는 사실 가설의 제시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감히 이 가설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연구, 구명해야 할 과제를 미리 발표함으로써, 긴 분량의 대하소설 연구에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필자를 묶어 두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행시키고자 한다.

10) 대체로 황제, 황후 등에 의한 녹혼일 경우에 보인다.

11) 이수봉, *op. cit.*, p.413.

4. 유효공선행록 분석에서 남은 문제

본항은 유효공선행록의 분석에 있어서 좀더 넓은 영역에까지 연구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위해서 설정했다. 그런데 과연 유효공선행록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이다.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유효공선행록이 장편대하소설의 출현과 거의 때를 같이한 초기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초기의 작품은 당연히 그가 속한 유형의 순수성과의 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효공선행록 연작이 갖는 의미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유효공선행록은 연작 소설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효공 선행록→유씨삼대록의 연작 관계이다. 우리의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작 관계를 갖는 작품들이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성현공숙열기→임씨삼대록, 쌍천기봉→이씨세대록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유효공선행록은 장편 대하소설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창작된 작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대개 이러한 장편 대하소설이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에 출현했다고 보여지는 데 유효공선행록의 창작 연대 역시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유효공선행록은 유씨삼대록과 연작 관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유씨삼대록의 창작 가능 연대를 살피는 것이 유효공선행록의 창작연대 추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씨삼대록은 洪轅福의〈第一奇言〉 서문에 한국소설이라고 밝혀져 있다.¹²⁾ 물론 이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지만,¹³⁾ 결정적인 새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한에는 받아들이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유효공선행록만 보더라도 정지상의 식구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자 집을

12)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중국학논총』 1, 고려대중국학연구소, 1984) pp. 79-80.

13) 심경호, “조선후기소설고증(Ⅰ)”(『한국학보』 56, 서울, 일지사, 1989) pp. 80-81.

떠나려는 흥길동전과 유사한 삽화가 들어나는 등 우리 소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유씨삼대록의 창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문헌상의 기록은 박지원의 <熱河日記>에 나타나 있는데, <열하일기> “駟汎隨筆” 7월 17일癸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有東謠劉氏三代錄數卷 非但謠書龔荒 券本破敗(우리 달로 된 유씨삼대록 여러 권 있는데 글이 엉망일 뿐 아니라 책장은 헤치고 떨어져다.)

연암이 1780년 박명원을 따라 중국에 가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열하일기이니, 유씨삼대록은 그 이전에 창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김동기교수는 그 책이 추황하고 권말이 파괘되어 있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이 책이 이만한 古本이라면 이 작품은 정조조 이전에 나온 소설이 틀림없다고 하였고,¹⁴⁾ 최길용교수도 이에 동조하였다.¹⁵⁾ 정확한 연대의 추정은 아니지만 이로써 유씨삼대록이 장편 대하소설의 출현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창작되었음이 분명해지며, 아울러 유씨삼대록과 연작 관계에 있으면서 유씨삼대록보다 조금은 앞서 창작된 유효공선행록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第一奇言>에서 유씨삼대록이 맨 앞에 놓인 것도 창작시기의 우선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장편대하소설은 처음에는 개인의 업적에 대한 서술에서 시작되었다가 그것이 가문에 대한 서술로 나아갔고 마침내는 가문과 가문의 이야기로 점차 그 대상과 영역을 점차 확대, 발전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명주보월빙→운, 하, 정삼문취록이나, 조금은 다르지만 양문충의록에서 정실 조부인에 대해서는 조씨삼대록을 보라고 한 기록, 그리고 운, 하, 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의 관계 등은 어느정도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고전 장편소설의 출현은 000선행록의 출현에서부터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장편 대하소설을 가문소설이라하여 ***삼대록(유씨삼대록)에서부터 그 출현을 문제삼은 이수봉의 연구는¹⁶⁾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14) 김기동, op. cit., p.815.

15) 최길용, “연작형소설연구”,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22-23.

16) 이수봉, op. cit., p.242.

2) 영웅소설파의 대비

유효공선행록과 같은 장편소설에는 가문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효공선행록 영웅소설의 대비는 어찌 보면 결코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듯도 하다. 그러나 고전소설 중에서 가문에 관한 의식이 다소나마 드러나는 소설 유형이 바로 이 영웅소설군이며, 따라서 본 항의 대비를 통해 그들 사이에 드러나는 가문의식의 차이가 밝혀진다면 이는 가치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품에 있어서의 가문에 대한 의식의 차이는 그들 작품 담당층의 의식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괄적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웅소설에서 가문에 대한 의식이 드러나는 곳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영웅소설의 유형적 특징에서 보명 주인공의 탄생에서 고난에 이르는 부분이 앞에서 말한 전반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투쟁을 거쳐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부분은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영웅소설의 경우를 살펴보자.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¹⁷⁾ 한 가문에 태어난다. 당시에 영달한 가문이지만 주인공의 성장과 함께 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만다. 따라서 주인공은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인물이 되고, 그만큼 주인공은 힘겨운 고난을 겪게 된다. 그 후의 주인공의 행위는 옛 가문을 되찾는, 아니 옛 가문의 회복을 넘어 더욱 확고한 현실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영웅소설에서는 이의 성취를 위해 투쟁이라는 극단적, 허구적인 문학적 장치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주인공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성취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이미 현실에 기반을 두었으면서도 투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주인공의 현실적 입지가 훨씬 강화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에 의해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래서 자손들이 잘지냈

17) 줄 고, “영웅소설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27-51에서 영웅소설 주인공의 고귀한 혈통에 대하여 상론하였음.

다는 한마디로 작품을 끝내기에 연작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린다. 완전히 허구인 이 작품군은 주명희의 말대로 忠을 가장한 것으로,¹⁸⁾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나아가 카타르시스에까지 이르게 한다. 어떤 사람이 영웅이 실의한 대목에 이르러 강독사를 담배 자르는 칼로 찢러 죽였다는 기록은 이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유효공 선행록은 어떠한가?

우선 이 작품의 주인공은 탄생에 있어서 결코 영웅소설의 주인공처럼 천상의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고난의 극복이나 위기의 해결 모두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없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일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탄생 후 가문의 몰락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인공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속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들에게는 몰락한 가문의 회복이라는 긴박한 문제는 없으며 그에 따라 투쟁이라는 허구적 문학 장치도 필수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이들 작품 속에서 忠, 孝는 가장이 아니라 절실한 것으로 드러난다. 본고의 대상인 작품의 제목이 유효공선행록일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 실려 있는 필사기, 혹은 後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뛰어난 행적이 민멸될까 두려워 이 글을 짓는다는 식의 술이 바로 그것이다.¹⁹⁾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효공선행록은 유연의 효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孝가 이 작품에서 얼마나 절실한 소재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영웅소설과 이들 작품군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해졌다. 영웅소설이 기존의 관념을 빌어 주인공의 지향욕망의 성취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면 유효공선행록은 오히려 기존 관념의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곧 소설 담당층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주명희, “군담소설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석사학위논문, 1974, pp.51-79.

19) 유효공 선행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보인다.

3) 결말의 특이성

우리의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²⁰⁾ 주인공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고난은 겪지만 끝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며 오래 오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고전소설이 갖는 서술의 유형성이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유효공선행록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주인공 유연이 세상에 태어나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자손까지 두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결말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이미 앞의 순차단락의 검토에서 밝혀졌듯이 유효공선행록의 주인공인 유연은 41세의 젊은 나이로 죽는다. 그 이유는 원래 약질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유우성도 나이 30에 죽는다. 이러한 것들은 고전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인공의 단명이다. 우리의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서술되고 있는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단지 유효공선행록만의 특징이 아니고 장편소설의 전반적 특징이지만, 끝부분에 나타나는 작가의 소리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효공선행록의 경우에는 유연의 친구인 강형수의 아들 강선택이 그의 아버지 일기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 이의 의미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결말 부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소설의 내용을 사실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의 영웅소설과의 대비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을 마치 실존했던 인물인양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4) 사대부적 가치관

이 외에도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철저한 사대부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20) 서대서,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관악어문』 3, 서울대 1978).

있다. 유흥이 연에 대하여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선비로서 최고가 되려는 자신의 생각 때문인 데에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에 드러나는 작가의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연과 유우성의 갈등이 해소된 후 우성이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곳에서 작가는 우성을 이상적인 사대부로 묘사하는 한 요소로써 노비에게 엄격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흥이 돌아온 후에 가노들이 세를 따라 흥을 박대하는 것에 대하여 작가는 그것을 천인들의 식견이라고 몰아치고 있다. 반면 그 일을 다스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밝혔지만 주인공 유연은 모든 행동을 중세적 가치관에 따라 하고 있다. 유흥이 밝혔듯이 유연은 선비중의 으뜸인 것이다.

이러한 사대부적 가치관은 현세적 삶의 일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 전반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장편대하소설 중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유효공선행록에 대해 갈등을 중심으로 한 작품 분석 이외에도 다음의 사실들이 밝혀졌다.

1. 우리의 장편 대하소설이 *** 선행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2. 유효공선행록이 일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관념의 강화라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는 점.
3. 유효공선행록에서 사실화의 의도가 보인다는 점.
4. 사대부적 가치관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

이 네가지는 모두 장편 대하소설의 출현을 살피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물론 장편 대하소설의 출현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품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가 머지 않은 기회에 다룰 것이다.

5. 결 론

장편 대하소설에 있어서 비교적 초기에 창작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유

효공선행록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유효공선행록은 유씨삼대록과 연작 관계에 있다.

둘째, 유효공선행록은 부자, 형제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셋째, 부자, 형제 갈등은 가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데,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인물의 성격으로 인해 형제갈등이 더 큰 부자갈등으로 확대되고, 따라서 형제갈등은 부자갈등의 이면으로 숨는다.

네째,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바로 유씨 가문의 완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게 되어 연작인 유씨 삼대록에서 가문을 완성하게 된다.

이상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 이외에도

첫째, 유효공선행록→유씨 삼대록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장편 대하소설의 출현은 *** 선행록류에 대해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유효공선행록은 일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존 관념의 강화라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

셋째, 유효공선행록에 사실화의 의도가 보인다.

네째, 유효공선행록은 사대부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상의 네가지는 장편 대하소설의 출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